〔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7, No. 8 (2003) p.924~934

의복스타일에 따른 평가의 재현성 차이에 관한 연구

유 경 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A Study of stability in ratings for clothing styles

Kyung-Sook You
Dept. of Clothing & Textil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2003. 2. 28. 접수)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measure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style evaluation and to examine its relation to the ratings. For this study, a pilot test was conducted to 50 clothing majored university students to explore the stimulus of 'cute', 'casual', 'sexy', 'elegant', 'intelligent', 'formal', 'romantic', 'individual', 'refined' for the 9 each image styles from the 32 spring wears in fashion magazine 『FARBE』 (March, 2000). On the basis of the preliminary survey, the question items explored the 15 pairs of bipolar adjectives as seven-point Likert type. The main survey was preceded 94 female and 111 men of university students from March 13 to 24 in 2000, twice for 7-days interval. As a result of analyzing of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two ratings for each subjects,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the evaluation, ranged from -.11 to .87 and mean coefficient was .64 of female and .20 to .76 and mean coefficient was .57 of male. Female had higher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the evaluation than male. Based on the coefficients,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high, medium, and low intra-individual consistency. Analysis of variance of mean ratings by the three groups reveal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in 42% of female and 25% of male in 135 combinations of 9 clothing and 15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There was an apparent tendency that subjects of female with high intra-individual consistency were mostly definitely to evaluate clothing, whereas the ones with low were least. But male shows opposit trend compare to each groups of female.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female rated higher intra-individual consistency and definition in the two times evaluations than male and among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consistency differ depending on style and gender.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helpful clothing image evaluation, and clothing image selection tendency.

Key words: clothing evaluation, semantic differential scale, correlation consistency, test-retest stability; 의복평가, SD척도, 일관성의 상관관계, 재검사안정성

I. 서 론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은 제품에서 기능적인 면보다 각 개인의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면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특히 의복은 다른 제품에 비해 높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이미지 특성이 강한 제품이다. 따라서 의복은 자아평가와 착용자에 대한 타인의 평가기준이 되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2001 SEOUL KSCT/ITAA 발표논문임.

매력을 증진시켜 이를 타인에게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복의 중요성은 결국 의복이 갖는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을 평가하는데 있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의복에서 표현되는 시각적 이미지와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관련시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복장에 대한 개개인이 갖는 심리적 의미는 평가자에 따라 다르지만 복장의 이미지나 기호 등에 관한 연구에는 평가자의 평균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의 개인차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적다(Miller, 1982; Lennon, 1984).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의류분야를 대상으로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쾌적감 · 불쾌감 등의 심리적 체험에 의한 인간의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면을 디자인, 색채, 재질 등을 통하여 감성공학을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김미지자, 1996), 최근에는 의복재질의 시각적 감성(오해순, 이경희, 2001), 패션감성(이경희, 2001; 이경희, 이유진, 2002), 의복배색(은소영 외, 2002) 등에 관한 감성이미지 통한 감성어휘와 감성의 객관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는 각 의복스타일에 따른 평가에 대하여 재검사법을 적용하여 SD척도의 평가내의 차이를 산출하여 평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더불어서 동일한 피검자 그룹에 대하여 같은 의복스타일을 같은 SD척도를 사용하여 2회 측정하여 그것들의 평가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각 SD척도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피검자별로 그것들을 2회의 평가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상관계수는 평가기준의 애매성이 반영된 평가자간의 차이, 즉 평가의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평가자간의 차이의 크기에 따라 피검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그룹간의 평가치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동일한 피검자를 대상으로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재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복장을 자극으로서 평가에 적용하여 전 평가자의 평균적인 평가치를 사용하여 각 평가자의 평가에 재현성을 검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보강사진, 색종이 및 실제의 복장을 자극으로 사용하여 평가에 재현성을 측정하여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는 유행을 고려한 의복 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하여 재현성을 검토하여 의복평가에 있어서 척도의 특성을 파악하여 여성복의 시장 세분화 브랜드 이미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의복이미지 및 평가의 재현성

오늘날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요구는 디자인 요소인 제품의 형태, 소재, 색채 등에 시각 및 촉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감각적인 것으로서 그에 따른 감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이경희, 2001; 김유진, 이경희, 2000; 은소영 등, 2002).

그러나 평가의 개인차에는 평가자간 및 평가내의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평가자의 가치관, 기호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주로 평가자의 복장에 대한 평가기준의 애매함이나 평가시의 모든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복장 척도를 평가시켰을 때 그 평가 폭은 평가항목에 따라 달랐는데(福井典代, 1997), 보통 측정에는 평가치 안에 두 가지의 차이가 혼합되어 있어 그것들의 영향을 분리시켜서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디자인의 요소 중에서 색은 현대패션에서 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색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에 관한 연구는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거나 의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배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을 통한 차별화로 상품개발(은소영 외, 2002)은 마케팅 전략시에 중요하다.

김윤경, 이경희(2000)는 의복무늬에 있어서 개인과 지역에 따라 감성의 차이가 있으며,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판별이미지는 보기좋은-보기싫은,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는, 유쾌한-불유쾌한의 순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감성에 따라 선, 형의 형태가 판별되며 의복디자인의 장식적 요인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김경애 등(1999)은 셀룰라아제 처리된 데님직물의 태에 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은 중량감보다 표면특성을 중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내구성보다는 형태회복성과 같은 심미성에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남학생은 표면특성보다는 중량감을, 형태의 회복성보다는 내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차이를 보였다.

문미아, 박혜선(2000)은 남자 중 · 고등학생의 자기이미지와 의복추구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사무적이고 현실적인 집단은 번화가 상황에서는 '세련된'의복이미지를, 집 주변에는 '장식적인', '간편한' 의복

이미지를 추구하였고, 모든 상황에서 어려보이는 의복이미지를 기피하였다. 어려보이고 여성적인 집단은 상황에 관계없이 어려보이는 의복이미지를 추구하였고, 무개성한 집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추구하는 의복이미지가 없었다. 활동적인 집단은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의복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번화가 쇼핑시에는 '세련된' 의복이미지를, 집주변에서는 '섹시한' 이미지를, 축제시에는 '독특한', '격식을 차리는' 의복이미지를 추구하였고, 모든 상황에서 어려보이는 의복이미지를 기피하였다. 세련되고 솔직한 집단은 상황에 따라 가장 다양한 의복이미지를 함께 추구하고 기피하는 이미지는 없었다.

복장에 따라 일어나는 다면적 감정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측정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西藤榮子 등(1994)은 감정용어에 대한 요인분석을 행하여 긍정적 감정상태「쾌활・상쾌」「충실」「우월」「편안함」과 부정적 감정상태「억압・동요」「수치」「억압・긴장」의 모두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西原容以 등(1996)은 여대생을 대상으로「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또는「입고 싶은/입고싶지 않은」것으로 평가된 옷을 입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상태의 특징을 4가지 상황에 따라 비교 검토한 결과 그 평가에 대응한 7가지의 감정이 일어나, 상황에 어울리고, 입고 싶다고 평가된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쾌활」의 감성이 각 상황에 강하게 일어났으며, 레저 여행할 때에는 통학할 때보다 더 강하게 일어났다.「우월」의 감정은 졸업파티에서,「충실」의 감정은 회사방문, 졸업파티에서,「안심」의 감정은 작은 여행, 통학의 상황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어울리지 않고 입고싶지 않다고 평가된 의복을 입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수치」의 감정이 특히 강하게 일어나,「억압, 동요」의 감정이 다음으로 강하게 일어났다.

개성 등을 측정하는 심리척도에는 그 척도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같은 척도를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동일한 피검자를 대상으로 2회 평가를 실시하여 그것들의 평가치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재 검사법으로 불리어져, 작성된 심리척도의 안정성 평가로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Gerson, 1996; India, 1996). 재검사 효과에 관련된 요인이 4개가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검사에 대한 이해, 또는 지식이고 다른 한가지는 태도나 분위기의 변화이다(Willson, 1995).

검사간격에 있어서 간격이 짧을수록 재검사 효과가 크다고 하나(Willson, 1994) 그 후의 연구에서는 1주일부터 1개월의 간격으로 실시된 것이 많고 그 범위 내에서 명확한 차이가 없었다(長谷川博一. 1995).

성격에 관련된 자기평가에 관한 재검사에서는 1회 때의 응답과 2회 때의 응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검토된 바에 의하면 速水敏彦(1996, 1997, 1998)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Mckelvie(1992)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되어있다.

그 영향의 유무는 측정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 특히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등 부정적인 자기평가 항목에는 재검사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長谷川博一, 1997).

재검사 효과가 있다고 지적된 자기평가 항목은 자기의 성격이나 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1회 때의 평가결과를 기억하기 쉬운 것 또는 그러한 검사에는 현재의 자기평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Gerson, 1996).

국내에서는 유경숙(2001)이 의복과 직물을 사용하여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친구의 생일파티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조사한 결과 남자보다 여자가 자극물에 대한 재현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개인 내 평가의 일관성이 높았다. 또한 여자는 평가의 일관성이 높은 그룹의 평가치가 각 평가 척도범위의 [매우] 쪽에 있고 일관성이 낮은 그룹의 평가치는 그 범위의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쪽에 있어서 일관성이 높을수록 더 명확하게 판단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를 하였으며, 각 이미지의 의복은 패션잡지『FARBE』에 게재된 봄 의상 32벌을 스캔해서 각각 A4 사이즈로 칼라 프린트 한 후, 의류 전공자 중 남자 7명 여자 43명으로, 모두 50명을 대상으로 선행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이미지의 점수가 가장 높은 9벌을 선정하였는데, 셀러돈 그레이색의 울 팬츠 슈트의 '지적인', 베이지색 면실크 투피스의 '엘레강스한', 연두색의 니트 원피스의 '귀여운', 베이지색 핫팬츠와 흰색 점퍼스타일의 '캐쥬얼한', 흰색 캐미솔 톱과 빨간색 스커트의 '섹시한', 검은색 원피스 스타일의 '로맨틱한', 보라색

실크 블라우스와 카키색 스커트의 '포멀한', 연두색 무늬가 있는 파란색 팬츠에 노란색의 7부 소매 블라우스의 '개성적인', 샌드 베이지색의 슈트 스커트의 '세련된' 스타일을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해서 1차와 2차 검사에서 동일인이 되어야 재현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극물을 피검자에게 나누어 제시하거나, 제시순서에 변화를 주거나 통제를 할 경우 2차 조사시에 설문지 배포가 너무 복잡하고, 완전한 설문지 회수율이 너무 낮을 우려가 있어서 집중력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1명의 피험자가 9개의 자극물을 모두 평가하도록 하였다.

의복이미지 평가에 관련된 설문은 각 자극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반대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쌍으로 된 15개의 척도를 유경숙(2001)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를 위하여 임의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SD 척도는 '매우 그렇다'를 양쪽 끝으로 하여, '그렇다', '약간 그렇다', 가운데를 '어느 쪽도 아닌' 4점을 기준으로 양쪽 끝으로 갈수록 그 형용사의 의미가 강한 7점의 척도로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00년 3~4월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군산대학교 1, 2학년의 남녀 대학생으로 하였다. 의복의 측정 방법은 남녀 각각 150명을 대상으로 응답의 신뢰성을 위하여 1주일의 간격을 두고 같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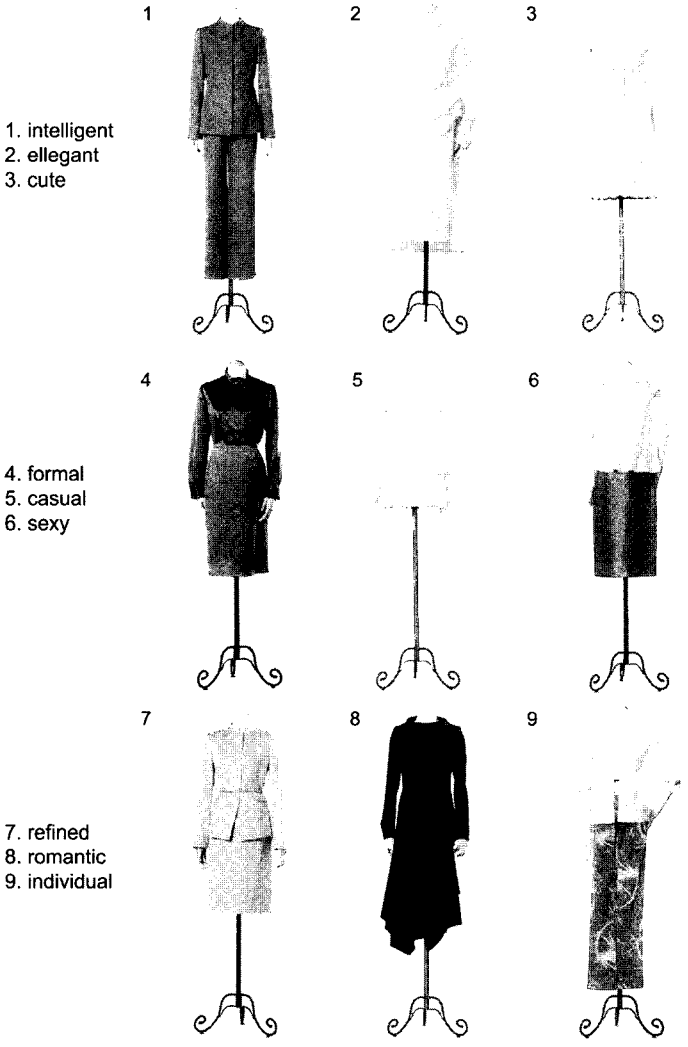

Fig. 1. 자극물

간 같은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2회 조사한 것을 합하여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1회 조사에 그친 설문지를 제외한 여학생 111명과 남학생 94명의 대학생의 응답이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분석

1. 평가자별 상관계수

자극으로 사용된 9개의 자극을 15개의 SD척도를 사용하여 1주일의 간격을 두고 2회 측정한 후 그 9 15를 관측회수로서 평가자별로 1회와 2회 때의 평가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1회와 2회 평가의 상관계수는 여자대학생이 -.011에서 0.87의 범위이며 이때 평균치는 0.64이었다. 한편,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0.2에서 0.76로서 평균치는 0.57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남자대학생 보다 여자대학생의 상관계수가 높아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극에 대한 재현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개인내의 평가의 일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유경숙, 2001)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이러한 자기평가에 비교하여 본 연구의 복장이미지 평가에는 평가항목이 135개가 있어서 1회 때의 평가결과를 기억하기 어렵고 또한 자기의 평가를 사회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재검사 효과를 별로 고려할 것 없이 측정 결과를 고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9개의 자극물을 15개의 SD척도로 2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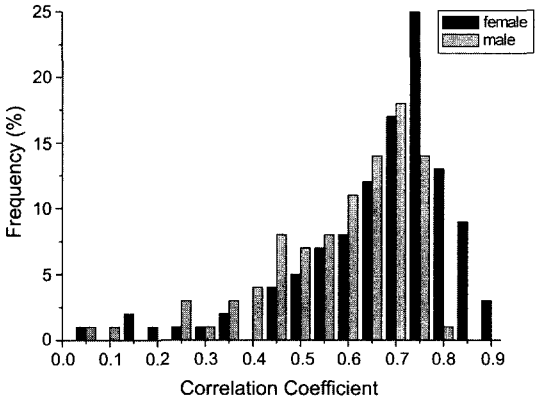

Fig. 2. Frequency distribution of correlation coefficient,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image evaluation, between the two ratings of each subject.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each clothing image in each semantic differential scale of femal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A	B	C	D	E	F	G	H	I	mean
SD1	characteristic-ordinary	.41	.26	.44	.63	.44	.36	.46	.46	.47	.44
SD2	active-calm	.43	.32	.48	.20	.24	.47	.26	.44	.44	.36
SD3	refined-unrefined	.56	.38	.68	.61	.43	.71	.50	.45	.56	.54
SD4	superior-poor quality	.43	.31	.50	.39	.26	.43	.42	.52	.38	.40
SD5	splender-plain	.33	.52	.37	.40	.44	.56	.42	.45	.40	.43
SD6	light-heavy	.43	.41	.46	.41	.33	.46	.39	.64	.45	.44
SD7	good-bad	.60	.53	.57	.47	.50	.55	.43	.58	.56	.53
SD8	tender-stiff	.46	.50	.41	.48	.53	.32	.44	.60	.36	.46
SD9	familiar-unfamiliar	.43	.44	.53	.37	.38	.51	.51	.56	.43	.46
SD10	warm-cold	.46	.47	.49	.32	.37	.50	.37	.49	.30	.42
SD11	attractive-unattractive	.48	.54	.56	.63	.45	.74	.43	..48	.56	.54
SD12	natural-unnatural	.30	.51	.47	.48	.56	.65	.39	.59	.54	.51
SD13	like-dislike	.60	.54	.60	.34	.40	.74	.55	.44	.56	.53
SD14	feminine-masculine	.58	.46	.60	.44	.42	.39	.36	.70	.46	.49
SD15	young-old	.50	.65	.52	.48	.43	.44	.42	.43	.50	.49
	mean	.47	.46	.51	.44	.41	.52	.43	.52	.46	.47

Abbreviation : A: intelligent, B: elegance, C: cute, D: formal, E: casual, F: sexy, G: refined, H: romantic, I: individual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each clothing image in each semantic differential scale of mal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A	B	C	D	E	F	G	H	I	mean
SD1	characteristic-ordinary	.20	.11	.48	.39	.37	.20	.62	.31	.63	.46
SD2	active-calm	.59	.32	.51	.32	.58	.33	.31	.41	.58	.44
SD3	refined-unrefined	.53	.48	.54	.54	.65	.32	.36	.49	.48	.49
SD4	superior-poor quality	.41	.36	.62	.38	.44	.53	.17	.32	.52	.42
SD5	splender-plain	.33	.45	.39	.33	.26	.38	.49	.50	.41	.39
SD6	light-heavy	.32	.20	.50	.32	.26	.37	.45	.25	.46	.35
SD7	good-bad	.53	.42	.46	.46	.40	.30	.54	.47	.56	.46
SD8	tender-stiff	.55	.60	.22	.42	.22	.52	.43	.41	.29	.41
SD9	familiar-unfamiliar	.44	.29	.34	.47	.47	.24	.50	.27	.36	.38
SD10	warm-cold	.53	.42	.34	.35	.48	.60	.44	.31	.61	.45
SD11	attractive-unattractive	.44	.22	.27	.50	.41	.37	.57	.63	.62	.45
SD12	natural-unnatural	.40	.27	37	.34	.46	.28	.48	.34	.26	.48
SD13	like-dislike	.43	.51	.55	.40	.60	.36	.50	.56	.45	.42
SD14	feminine-masculine	.41	.37	.52	.41	.45	.20	.42	.57	.45	.42
SD15	young-old	.51	.59	.54	.38	.34	.35	.64	.34	47	.46
	mean	.44	.37	.44	.40	.43	.36	.46	.41	.48	.42

Abbreviation : A: intelligent, B: elegance, C: cute, D: formal, E: casual, F: sexy, G: refined, H: romantic, I: individual

를 하였을 때 1회 때와 2회 때가 비슷한 평가를 한 사람(상관계수가 큰 평가자)은 자극에 대한 평가기준이 확립되어 있어 반복평가를 할 경우 같은 평가를 하는 평가의 일관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평가척도별 상관계수

평가자를 관측횟수로서 각 의복이미지에 대한 평가척도별로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척도별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것은 여자의 경우 포멀스타일 0.2, 캐주얼스타일 0.24로 나타난 「활동적인-차분한」 척도로서, 각 척도별 상관계수의 평균치에서도 가장 낮은 0.36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유경숙, 2002)보다 높은 상관계수로서, 선행연구에서 거의 상관이 없는 정도보다는 낮게 나타난 척도를 제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척도는 섹시스타일의 「매력적인-매력없는」, 「좋아하는-싫어하는」 모두 0.74, 「세련된-세련되지 못한」 이 0.71로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들의 상관계수를 평가척도별로 평균값을 보면 그 값이 가장 작은 것은 「활동적인-차분한」0.36이고, 「세련된-세련되지 못한」, 「좋은-나쁜」, 「매력적인-매력없는」, 「좋아하는-싫어하는」 등의 척도가 그밖에 다른 평가척도의 수치보다 큰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척도는 자극의 종합평가 내용을 가진 것으로, 다른 척도에 비해 자극을 전반적인 시점으로부터 평가하는 것이 되므로 기억하기 쉽고 1회때의 평가와 비슷한 평가를 2회때 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의복스타일에 따른 상관계수의 평균값을 보면 가장 낮은 캐주얼스타일의 0.41에서 가장 높은 섹시스타일과 로맨틱스타일 0.52까지 큰 차이가 없었다.

남자의 경우 가장 상관계수 낮은 척도는 엘레강스한 스타일의 「독특한-평범한」 0.11으로 여자와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척도는 캐주얼스타일의 「세련된-세련되지 못한」 0.65로서 의복스타일에서 차이는 있지만 척도는 비슷하였다. 평가척도별 상관계수의 평균치에서가장 낮은 척도는 「가벼운-무거운」 0.35이고, 가장 높은 것은 「세련된-세련되지 못한」 0.49로서 여자와 마찬가지로 종합평가 내용을 가진 척도가 다른 척도에 비해 높았다.

이상으로 의복의 스타일 평가의 척도별 재현성을 살펴보면 여자 0.2~0.74, 남자 0.11~0.63로서 상관계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평균치가 여자대학생이 0.47로서 0.42의 상관계수를 보인 남자대학생보

다 높아,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조사에 사용된 자극물이 패션잡지에서 추출한 것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의복스타일로서 남자대학생들에게도 익숙하기 때문으로 그들 나름대로 복장에 대한 기준에 의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용된 자극물이 모두 여성복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평가기준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평가기준이 덜 확립되어 있어서 반복평가를 할 경우에 평가의 일관성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Table 3. Mean ratings each clothing image in each semantic differential scale by three subject groups with high, medium, and low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evaluation of female (*p<0.05, **p<0.001)

clo.	consistency	SD1	SD2	SD3	SD4	SD5	SD6	SD7	SD8	SD9	SD10	SD11	SD12	SD13	SD14	SD15
A	high	5.60	6.71	2.90	2.35	5.73	5.23	2.76	3.84	3.58	4.10	3.69	3.39	3.00	2.71	4.44
	medium	5.38	6.35	2.90	2.43	5.46	4.94	2.74	3.95	3.55	3.94	3.75	3.17	3.18	3.22	4.17
	low	4.98	5.68	3.32	2.96	5.38	4.48	2.88	3.70	3.36	4.21	3.69	4.11	3.46	3.09	4.13
	F value	3.58*	14.06**	2.06	5.03	1.47	7.17**	.21	.57	.50	.77	1.57	.53	1.31	2.30	.79
B	high	2.10	4.63	2.06	2.61	2.54	2.97	2.27	1.89	3.23	2.47	2.16	3.29	2.82	1.35	2.89
	medium	2.52	4.37	2.80	3.22	3.15	3.23	2.95	2.27	3.54	2.62	2.73	3.32	3.45	1.90	3.22
	low	2.34	4.39	2.77	3.14	2.91	3.18	3.11	2.50	3.80	2.96	3.09	3.57	4.09	2.13	3.21
	F value	2.91	.88	7.03**	5.21	3.95	.99	7.42	5.67	2.39	2.70	6.67	.60	8.22	10.83	1.04
C	high	2.40	3.08	3.77	4.26	4.10	2.69	3.77	3.06	3.85	3.68	3.53	3.89	4.27	1.94	2.19
	medium	2.96	3.02	3.73	4.22	4.32	3.01	3.51	3.08	3.50	3.73	3.67	3.54	4.18	2.02	2.44
	low	3.20	3.11	4.09	4.21	4.29	3.30	3.79	3.52	4.02	3.95	3.91	4.11	4.79	2.34	2.61
	F value	4.98*	.10	1.13	.03	.55	3.44*	.94	3.15*	2.35	.65	.86	2.85	2.33	2.13	1.18
D	high	4.08	5.76	6.05	3.98	4.21	5.94	5.76	4.90	5.94	4.68	5.98	6.00	6.48	2.40	6.61
	medium	4.54	5.60	5.67	3.88	4.46	5.36	5.35	4.54	5.30	4.63	5.42	5.38	6.15	2.80	6.07
	low	3.63	5.07	5.05	4.14	4.02	4.73	5.32	4.30	5.21	4.82	5.00	5.16	5.59	2.77	5.73
	F value	4.44*	5.96*	6.70*	.51	1.59	15.32**	2.13	2.34	5.88*	.39	6.83**	8.03**	7.64**	1.66	12.24**
E	high	2.92	1.48	3.16	4.24	4.63	1.94	2.84	2.94	2.81	3.24	3.35	2.82	2.73	3.50	1.68
	medium	3.07	1.67	3.40	4.42	4.12	1.88	3.16	2.96	3.21	3.10	3.57	3.29	3.78	3.49	1.93
	low	3.13	2.25	3.80	4.50	4.43	2.63	3.39	3.68	3.43	3.77	3.91	3.70	4.00	3.97	2.50
	F value	.27	10.99**	3.02	1.29	2.68	8.03**	2.13	8.25**	3.20*	4.50*	2.07	4.85*	9.98**	2.82	7.58**
F	high	1.48	3.37	2.40	4.76	1.71	2.17	3.61	3.37	4.55	3.90	2.44	3.98	3.74	1.40	1.90
	medium	1.91	3.14	3.14	4.88	2.38	2.40	3.96	3.59	4.67	3.93	3.11	4.20	4.56	1.97	2.08
	low	2.21	3.55	3.27	4.71	2.64	3.07	4.07	3.75	4.48	4.29	3.36	4.25	4.41	2.57	3.09
	F value	8.75**	1.61	5.41*	.37	12.22**	9.77**	1.31	1.67	.32	1.23	5.32**	.51	3.84*	21.40**	14.07**
G	high	5.15	6.48	2.79	2.35	4.98	4.60	2.68	3.50	3.42	3.50	3.27	3.19	3.06	1.79	3.89
	medium	5.07	6.12	2.95	2.29	5.08	4.66	2.67	4.04	3.58	3.69	3.51	3.13	3.37	2.28	4.17
	low	4.30	5.50	3.07	2.52	4.55	4.24	2.86	3.34	3.38	3.66	3.93	3.27	3.45	2.61	3.88
	F value	6.27*	8.27**	.54	.69	3.07*	2.41	.42	3.94*	.44	.40	2.61	.18	.93	6.34*	1.06
H	high	2.08	4.92	2.63	2.87	3.50	4.94	3.37	3.68	4.42	4.31	3.15	3.98	3.53	1.92	3.40
	medium	2.07	4.40	2.56	3.34	3.45	4.16	3.32	3.48	4.16	4.10	2.94	3.69	3.64	1.88	3.08
	low	2.30	4.42	3.16	3.43	3.46	3.88	3.38	3.59	4.29	4.46	3.23	4.04	3.91	2.23	3.54
	F value	.83	2.73	3.51*	3.67*	.02	8.68**	.04	.38	.56	1.31	.69	1.10	.61	2.06	1.91
I	high	1.32	2.76	2.63	4.50	1.69	1.82	3.44	3.42	4.29	3.89	2.53	4.00	3.81	2.35	2.24
	medium	1.67	2.72	3.08	4.22	1.90	1.94	3.40	3.56	4.13	3.58	3.12	3.88	4.47	2.91	2.86
	low	2.14	2.80	3.57	4.46	2.46	2.43	3.73	3.73	4.73	4.09	3.45	4.20	4.55	3.23	3.34
	F value	10.50**	.06	4.85*	1.27	8.65**	6.56*	.90	1.01	2.82	2.41	5.87*	.79	3.69*	6.67*	7.25*

3. 재평가 일관성의 차이에 따른 평가평균치의 차이

각 의복스타일에 대한 평가의 일관성을 평가자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산출한 상관계수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계수가 낮은 응답자부터 높은 응답자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 상관계수의 대수에 따라 평가자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남자의 경우 상관계수가 0.46이하는 평가의 일관성이 낮은 그룹(25%), 상관계수가 0.47~0.68를 중간

Table 4. Mean ratings each clothing image in each semantic differential scale by three subject groups with high, medium, and low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evaluation of female (*p<0.05, **p<0.001)

clo.	consistency	SD1	SD2	SD3	SD4	SD5	SD6	SD7	SD8	SD9	SD10	SD11	SD12	SD13	SD14	SD15
A	low	5.25	5.69	3.02	3.02	5.46	5.02	3.19	4.10	4.04	4.63	3.98	3.56	3.73	2.85	3.77
	medium	5.02	5.80	3.50	3.26	5.37	4.99	2.99	3.76	3.47	4.20	4.01	3.59	3.77	3.04	3.85
	high	4.93	5.15	3.33	3.15	4.76	4.26	2.98	3.74	3.61	3.50	4.00	3.22	3.39	2.96	3.41
	F value	.64	2.65	1.63	.43	5.19*	6.00*	.33	.81	2.86	7.88**	.01	.96	.75	.22	1.05
B	low	2.33	3.81	2.33	3.02	2.83	3.23	2.60	2.65	3.40	2.90	2.19	3.35	2.92	1.54	2.60
	medium	2.21	4.00	2.39	3.25	2.55	3.18	2.68	2.54	3.79	3.24	2.60	3.74	3.09	1.79	2.73
	high	2.67	4.35	2.74	3.24	2.87	3.57	3.20	2.91	3.61	3.46	2.80	3.76	3.57	2.22	3.24
	F value	2.27	1.32	1.24	.40	.97	1.25	2.43	1.06	1.11	1.47	2.48	1.44	1.77	5.64*	2.11
C	low	2.44	2.50	3.50	4.27	4.58	2.94	3.40	3.27	3.27	4.04	3.31	3.29	3.58	2.06	2.23
	medium	2.59	2.78	4.02	4.64	4.50	3.42	3.89	3.75	3.78	4.37	3.89	3.80	4.28	2.47	2.90
	high	3.04	3.28	4.39	4.15	4.54	3.61	4.09	3.87	3.98	4.43	3.91	3.74	4.30	2.78	3.22
	F value	1.99	3.92*	4.19*	2.49	.05	2.58	2.46	2.83	2.92	.89	2.51	1.98	2.99	3.34*	4.55*
D	low	4.33	5.48	5.19	3.77	4.58	5.42	5.33	5.21	5.40	4.96	5.65	5.54	5.98	2.58	6.02
	medium	4.39	5.30	5.29	3.91	4.34	5.48	5.46	5.26	5.28	4.91	5.43	5.60	5.94	2.99	5.92
	high	4.09	4.89	4.48	3.87	3.85	4.61	4.78	4.26	4.37	4.22	4.35	4.85	5.20	3.33	5.22
	F value	.43	2.49	3.39*	.11	2.56	7.65**	3.00	9.05**	7.15**	3.91*	10.25**	4.43*	4.76*	3.36*	5.38*
E	low	2.46	2.02	3.21	4.83	4.08	2.08	2.98	3.42	3.40	3.92	3.31	3.27	3.21	3.54	1.98
	medium	1.99	1.80	2.87	4.82	3.83	2.09	3.00	3.51	3.57	4.34	3.12	3.59	3.43	3.14	1.95
	high	2.74	2.63	3.67	4.35	4.02	2.91	3.35	3.83	3.63	4.11	3.33	3.54	3.54	3.83	2.50
	F value	4.04*	5.23*	4.44*	2.05	.55	8.79**	.82	1.00	.31	1.09	.37	.57	.46	2.50	2.95
F	low	1.60	3.00	2.88	5.10	2.40	2.25	3.10	3.60	4.38	4.23	2.46	3.98	3.23	1.71	1.56
	medium	1.76	2.92	2.90	4.76	2.38	2.43	3.45	3.97	4.37	4.41	2.87	4.16	3.62	1.83	2.02
	high	2.24	3.09	3.09	4.65	3.00	2.93	3.59	3.76	4.41	4.76	2.91	4.04	3.74	2.09	2.37
	F value	3.35*	.17	.21	1.02	2.88	3.94*	.93	1.19	.01	1.15	1.14	.22	.95	1.65	4.78*
G	low	5.10	5.96	2.92	2.46	4.94	4.79	3.02	3.67	3.58	3.63	3.67	3.56	3.48	2.23	4.00
	medium	4.77	5.71	3.50	2.91	4.90	4.73	3.10	3.55	3.41	3.62	3.66	3.61	3.58	2.24	3.96
	high	4.04	5.28	3.15	3.09	4.30	4.11	3.07	3.09	3.35	3.15	3.22	3.28	3.13	2.33	3.59
	F value	5.82*	1.81	2.15	2.43	3.49*	3.59*	.04	1.52	.29	1.55	1.44	.67	.92	.08	.93
H	low	2.25	4.15	2.06	2.46	3.27	4.52	2.69	3.33	3.77	3.83	2.50	3.17	2.71	1.79	2.98
	medium	2.26	4.70	2.53	2.67	3.76	4.77	3.00	3.52	3.96	4.18	2.92	3.50	3.29	1.90	3.33
	high	2.48	4.26	2.67	3.17	3.33	4.20	3.24	3.63	3.80	3.85	3.11	3.50	3.28	2.63	3.33
	F value	.53	2.02	2.73	3.54*	2.13	2.34	1.61	.49	.27	.99	2.28	.92	2.27	7.32**	.89
I	low	1.52	2.66	2.46	4.34	1.62	1.74	3.08	3.66	4.04	4.16	2.54	3.60	3.56	2.26	1.76
	medium	1.60	2.57	2.65	4.34	2.13	2.11	3.49	3.77	4.37	4.24	3.25	4.28	4.07	2.47	2.35
	high	2.00	2.83	3.00	3.89	2.67	2.63	3.09	3.57	3.74	4.26	3.20	3.76	3.87	2.61	2.43
	F value	2.75	.45	1.31	1.55	8.14**	7.73**	1.62	.36	2.71	.05	3.34*	4.04*	1.32	.77	3.03

그룹(50%), 0.69이상을 일관성이 높은 그룹(25%)으로 분류하였다. 여자의 경우 상관계수가 0.57이하는 평가의 일관성이 낮은 그룹(25%), 상관계수가 0.58~0.75를 중간그룹(50%), 0.76이상은 일관성이 높은 그룹(25%)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분류한 평가의 일관성이 다른 3개의 그룹별로 각 자극에 대한 SD척도의 평가평균치를 산출하여 각 그룹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를 분산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35개(9×15)의 cell중에서 각 그룹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cell이 여자는 48개(36%), 남자는 34개(25%)로서 선행연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시된 자극물이 피검자들에게 선행연구보다 최신 스타일로서 더 익숙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평가의 일관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3개 그룹에 따른 평가 평균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cell이 가장 적은 자극은 남녀 모두 엘레강스한 스타일이었고, 가장 많은 자극은 포멀스타일이었다.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cell이 가장 많은 포멀스타일을 선택하여 그래프로 Fig. 2와 3에 나타내었다. 여자의 경우 3개의 그룹 즉 일관성이 높은, 중 정도의 그룹, 일관성이 낮은 그룹순, 또는 그 역순의 평가 평균치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평가의 일관성이 높은 그룹의 평가치는 각 평가의 7점 척도범위의 양쪽 끝의 [매우] 쪽에 있고, 일관성이 낮은 그룹의 평가치는 그 범위의 중간인 4점의 [어느 쪽도 아닌] 쪽에 위치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관성이 높은 그룹은 평가에 있어서 일관성이 낮은 그룹보다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익숙하지 않은 자극이나 평가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척도의 중앙에 집중한다는 선행연구(유경숙, 2001; 增山英太郎・小林茂雄, 1989)와 일치한다. 즉 일관성이 높은 그룹은 평가에 있어서 일관성이 낮은 그룹보다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여자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 즉 평가의 일관성이 높은 그룹의 평가치는 각 평가의 중간인 4점의 [어느 쪽도 아닌] 쪽에 있고, 일관성이 낮은 그룹의 평가치는 7점 척도범위의 양쪽 끝의 [매우] 쪽에 위치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제시된 자극물이 남자들에게 관심이 적은 여성복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척도의 중간인 [어느 쪽도 아닌] 평가를 한 그룹이 응답에 변화가 적기 때문에 일관성이 높게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자극물에 대한 평가에서 일관성이 낮은 그룹이 평가기준의 애매함 정도가 크고 범위의 [어느 쪽도 아닌]쪽에 평가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관성이 높은 그룹은 평가 기준의 애매함의 정도가 작아 제시된 자극물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평가를 했다고 생각되어진다. 자극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면 재현성이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자극물에 대한 평가에서 일관성의 경향은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서, 익숙한 자극물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낮은 그룹이 평가기준의 애매함 정도가 크고, 일관성이 높은 그룹은 평가 기준의 애매함의 정도가 작아 제시된 자극물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평가를 하나 잘 알 수 없는 자극물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한 평가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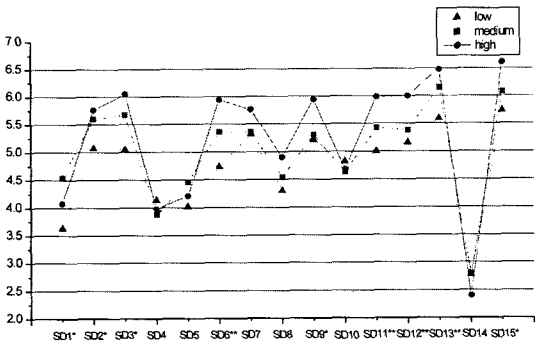

Fig. 3. Profiles of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s to stimuli D(formal wear) by three subject groups with high, medium, and low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image evaluation of fem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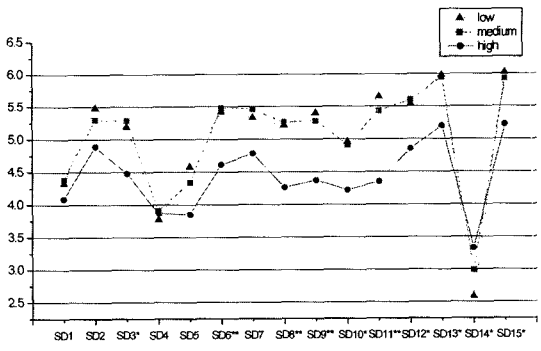

Fig. 4. Profiles of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s to stimuli D(formal wear) by three subject groups with high, medium, and low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image evaluation of male.

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피검자를 대상으로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재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의복스타일에 따른 평가의 일관성 및 평가에 대한 상호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의복스타일에 대한 평가의 재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동일 평가자에게 같은 자극물, 같은 SD척도를 사용하여 7일의 간격을 두고 2회 측정하였다. 각 자극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반대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쌍으로 된 15개의 척도를 그 형용사의 의미가 강한 7점의 척도로서 조사하였다.

자극으로 사용된 9개의 의복스타일을 평가자별로 1회와 2회 때의 평가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1회와 2회 때 평가의 상관계수는 여자대학생이 -.011에서 0.87의 범위이며 이때 평균치는 0.64이었다. 한편,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0.2에서 0.76로서 평균치는 0.57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남자대학생 보다 여자대학생의 상관계수가 높아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극에 대한 재현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개인내의 평가의 일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척도별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것은 여자의 경우 포멀스타일, 캐주얼스타일의 「활동적인-차분한」 척도로서, 각 척도별 상관계수의 평균치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냈다. 가장 높은 척도는 섹시스타일의 「매력적인-매력없는」, 「좋아하는-싫어하는」 「세련된-세련되지 못한」 이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들의 상관계수를 평가척도별로 평균값을 보면 그 값이 가장 작은 것은 「활동적인-차분한」 이고, 「세련된-세련되지 못한」, 「좋은-나쁜」, 「매력적인-매력없는」, 「좋아하는-싫어하는」 등의 척도가 그 밖에 다른 평가척도의 수치보다 큰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척도는 자극의 종합평가 내용을 가진 것으로, 다른 척도에 비해 자극을 전반적인 시점으로부터 평가하는 것이 되므로 기억하기 쉽고 1회때의 평가와 비슷한 평가를 2회때 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의복스타일에 따른 상관계수의 평균값을 보면 가장 낮은 캐주얼스타일의 0.41에서 가장 높은 섹시스타일과 로맨틱스타일 0.52까지 큰 차이가 없었다.

남자의 경우 가장 상관계수 낮은 척도는 엘레강스한 스타일의 「독특한-평범한」 0.11으로 여자와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척도는 캐주얼스타일의 「세련된-세련되지 못한」 0.65로서 의복스타일에서 차이는 있지만 척도는 비슷하였다. 평가척도별 상관계수의 평균치에서가장 낮은 척도는 「가벼운-무거운」 0.35이고, 가장 높은 것은 「세련된-세련되지 못한」 0.49로서 여자와 마찬가지로 종합평가 내용을 가진 척도가 다른 척도에 비해 높았다.

이상으로 의복의 스타일 평가의 척도별 재현성을 살펴보면 여자 0.2~0.74, 남자 0.11~0.63로서 상관계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평균치가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높았다.

각 의복스타일에 대한 평가의 일관성을 평가자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산출한 상관계수는 상관계수가 낮은 응답자부터 높은 응답자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 상관계수의 대수에 따라 평가자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평가의 일관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3개 그룹에 따른 평가 평균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cell이 가장 적은 자극은 남녀 모두 엘레강스한 스타일이었고, 가장 많은 자극은 포멀스타일이었다. 여자의 경우 3개의 그룹 즉 일관성이 높은, 중 정도의 그룹, 일관성이 낮은 그룹순, 또는 그 역순의 평가 평균치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평가의 일관성이 높은 그룹의 평가치는 각 평가의 7점 척도범위의 양쪽 끝의 [매우] 쪽에 있고, 일관성이 낮은 그룹의 평가치는 그 범위의 중간인 4점의 [어느 쪽도 아닌] 쪽에 있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여자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 즉 평가의 일관성이 높은 그룹의 평가치는 각 평가의 중간인 4점의 [어느 쪽도 아닌] 쪽에 있고, 일관성이 낮은 그룹의 평가치는 7점 척도범위의 양쪽 끝의 [매우] 쪽에 있었다.

본 연구는 자극물 선정에 있어서 특별히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실시한 선행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의복스타일을 자극물로 사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즉 표본의 크기가 작고 편의 표집으로 인한 편차 및 1인당 9개의 자극물 할당 과다와 자극물 제시 순서를 통제하지 않았고 복장에 따른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성복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극물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복장의 종류, 연령 및 계층의 차이와 성별에 따른 의복 태도와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미미자. (1996). *Texture와 Colour Coordination의 감성공학적 Technology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경애 외. (1999). 셀룰라아제 처리된 데님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제1보) -주관적인 태 평가를 위한 척도개발-. *한국의류학회지, 23*(8), 67-76.

김유진, 이경희. (2000).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26-36.

김윤경, 이경희. (2000).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6), 861-872.

문미아, 박혜선. (2000). 남자 중・고등학생의 자기이미지와 의복추구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48-759.

오해순, 이경희.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노랑의조형성과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6*(6), 865-876.

유경숙. (2001). 의복과 그 직물에 대한 평가의 재현성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3), 560-568.

이경희. (2001). 패션감성의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5*(3), 537-547.

이경희, 이유진. (2001).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845-855.

은소영 외. (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6), 833-842.

Gerson, A. C., Gerring, J. P., Freund, L., & Joshi, P. (1996). The Children's affective lability scale: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reliability. *Psychiatry Research, 65*(3), 189-187.

Inada, T., Matuda, G., & Kitao, Y. (1996). Barnes Akathisia Scale. Usefulness of standardized videotape method in evaluation of reliability and in training ra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6*(1), 49-52.

Lennon, J. S., & Davis, L. L. (1984). Individual differences in fashion orientation and cognitive complexity. *Perception and Motor Skills, 64*, 327-330.

Mckelvie, S. J. (1992). Does memory contaminate test retest reliability.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19*(1), 59-72.

Miller, G. F., Freinberg, A. R., Davis, L. L., & Rowold, L. K. (1982).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 in sensitivity to appearanc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0*, 381-390.

Windle, C. (1994). Test-retest effect on personality questionnaires. *Educational Psychological Measurement, 14*, 617-633.

Windle, C. (1995). Further studies of test-retest effect on personality questionnaires. *Educational Psychological Measurement, 15*, 246-253.

福井典代, 近藤信子, 藤原康晴. (1997). 服装評價におけるあいまいさの檢討. *日本纖維機械學會, 50*(10), 53-58.

西藤榮子, 中川早苗, 藤原康晴. (1995). 服装によって生起する多面的感情狀態尺度の作成. *日本纖維機械學會誌, 48*(4), 57-64.

西原容以 外 9人. (1996). 服装に對する評價とその服装によって生起する多面的感情 狀態との關係. *日本纖維機械學會誌, 49*(8), 55-62.

速水敏彦. (1976). 質問紙性格檢査の再檢査效果. *教育心理學研究, 24*, 57-61.

速水敏彦. (1977). 再檢査效果についての 一研究. *教育心理學研究, 25*, 40-44.

速水敏彦. (1978). 大學生における再檢査效果の生起. *心理學研究, 49*(3), 163-166.

長谷川博一. (1995). 自己評價の水準と項目評價性が再檢査效果に及ぼす影響. *心理學 研究, 66*(2), 417-422.

長谷川博一. (1997). 再檢査效果と項目再認識記憶の關係について. *心理學研究, 68*(5), 417-422.

增山英太郎, 小林茂雄. (1989). *センソリーエバリュエーション－官能檢査へのいざない－*. 東京: 垣內出版.